

우정 칼럼

## 우정(郵政) 국치와 우정인의 자랑

이 종 탁\*

이 땅에 경술국치가 있는 지 정확히 102년의 시간이 흐른 2012년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인근에 있는 우정총국 경내에 작은 우체국이 문을 열었다. 우정총국과 경술국치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지만, 우리 근대 우정의 역사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싹트고, 충돌하고, 또 비운을 맞았다는 점에서 과거를 돌아보게 만든다.

1884년에 설립된 우정총국은 한국 최초의 우체국이면서 우정행정기관이라는 역사성이 있다. 이것이 이번에 개국한 우정총국 우체국을 두고 128년 만에 부활한 우체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다. 그런데 우정총국은 안타깝게도 문을 연 지 20일이 채 안되어 수명을 다했다.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가 일본의 힘에 기대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3일 천하에 그치면서 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인 홍영식이 목숨을 잃고, 홍영식이 수장(首長)으로 있던 우정총국은 폐지됐다.

근대 우정이 부활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895년의 일이다. 우체사(郵遞司)라는 간판을 내건 우체국은 부활하자마자 성장을 거듭해 5년쯤 지났을 때 조선 정부에서 그 수가 가장 많은 현업기관이 됐다. 이 때문에 우체사를 관장하는 기관인 통신원 관제가 1900년 3월 공포되어 농상공부 산하에 있던 통신원이 장관급 부처로 승격 독립됐다. 이로써 우체국이 구한말 근대화를 이끄는 핵심기수가 된 것이다.

이러한 우체국이 부활 10년 만에 일본에 짓밟힌 것은 한국 우정사의 비극이다. 을사늑약이

\* 경향신문 출판국장, jtlee@kyunghyang.com

체결되기 일곱 달 전인 1905년 4월에 한일통신기관협정이란 것이 체결돼 한국의 통신주권이 통제로 일본에 넘어간 것이다. 이 협정 제 1조에 “한국은 우편 전신 전화 사업의 관리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고 적혀 있었으니,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우리측 당국자의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이 간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치욕스런 한일통신기관협정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우정인들의 항일정신이다. 탐관오리들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겼지만 우정인들은 통신주권을 지키고자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저항했다.

통신원 초대 총판인 민상호는 이 협정에 반대하다가 해직당했고, 민상호에 이어 총판이 된 장화식은 “통신은 나라의 이목이다. 이목이 없으면 어찌 사람이 사람이겠는가”라며 협정체결 후에도 통신권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빛나는 투쟁은 현장의 우정인에게서도 나왔다. 당시 일본은 자기들이 우체국을 인수한 뒤에도 직원을 전원 고용승계하고, 봉급을 같은 액수의 일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일본 돈의 가치는 조선 돈의 2배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월급이 2배가 되는 셈이라고 유혹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 흔들릴 우정인들이 아니었다.

일본이 협정문을 근거로 조선의 우체사를 접수하기 위해 한성우체총사와 전보총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곳 직원 44명 전원이 뚝뚝 뭉쳐 사표를 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일본의 관리가 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였고, 실제 전원이 우체국을 떠났다.

광주우체사에는 일본 측 인수위원이 경찰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지만, 우체사 직원들은 “상부(통신원)에서 아무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둘러대며 인수인계에 응하지 않았다. 상부는 상부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버틴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개성우체사에서 통신원에 올린 보고를 보자.

“금월 20일 일본측 무라카미 소장(村上宗太)이 다수의 사무원을 데리고 본사(本司)를 내방해 우표와 대금 각종물품 및 장부 11개를 압류하고, 문전에서 경성우편국 개성출장소라 쓰인 간판으로 바꿔달고 오늘부터 일본국 지국이 되었다고 말했으나, 통신원으로부터 명령이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를 공갈 위협하고 매일 수입

액을 계산하고 밤낮으로 직원들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처분을 빕니다.”

결국 일본은 경찰관과 군을 앞세워 강제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우체사 47곳과 전보사 35곳, 임시우체소 343곳 등 모두 427곳의 우정 포스트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우정포스트에 분산 보관돼 있던 우표 2환짜리와 10전짜리, 3전짜리 등 모두 951만 7,559매도 총칼을 앞세운 일본의 인수팀에 넘어가고 말았다. 일본은 이 우표를 발매 금지시키는 한편, ‘일한통신업무 합동기념’이라 쓴 우표를 발행해 한국 우정주권 침탈을 기념했다.

경술국치가 있던 해 이 땅에는 지방 군수가 360여 명 있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데 항의해 사표를 낸 사람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비하면 우체사 직원들의 기개는 자랑스런 우정의 유산이다. 일본우취협회장을 지낸 우정사학자 미즈하라 메이소(水原明窓)는 조선근대우편사라는 책에서 “당시 통신기관 하급관원들의 애국 행동은 자기 지위 보전에 급급한 정부 고관들의 매국적 행동과 대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07년 전 일본과 맺은 통신협정은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우정국치(郵政國恥)이지만, 우정인들의 기개만큼은 훌륭한 정신문화라 해도 좋을 것 같다. 한국의 우체국 직원들은 자랑스러운 선배 우정인을 가졌다.